

퍼펙트 論述

언어논술 실제 - 인간의 본성과 교육관

성선·성악 이분법적 구조에 집착말라



형상운
1318논술연구소
강사

해마다 제기되는 대학 입시와 교육 과정의 논의는 ‘어떠한 교육이 과연 학리적이고 올바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 준다. 이러한 고민은 비단 정부 관계자나 대학 교수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주어져 논술 시험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교육 영역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결부된 문제가 많았다. 인간의 본성이 선인가 아니면 악인가라는 질문은 교육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과 교육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화 과정 주요 수단으로서 교육

교육은 피교유자의 소질과 잠재적 가능성을 계발하여 이상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의도적인 작용을 뜻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회적 의미가 부각되어, 사회화 과정의 주요 수단으로서 사회 유지에 필요한 구성원을 배출하고 다음 세대로 문화를 전승하는 교육의 목적이 강조된다.

따라서 사회의 사상과 문화가 교육관에도 반영되어, 시대에 따라서 관념적 교육관, 실재적 교육관, 자연주의 교육관, 실용주의 교육관, 실존주의 교육관, 포스트모더니즘 교육관 등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체계화된 교육관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원적인 철학적 인식이 바탕으로 깔려 있다. 만약에 인간이 본래 선하다고 상정하면 교육은 그 선함을 보존하거나 회복하는 것이 되고, 악하다고 가정하면 교육은 그 악성을 계속 고쳐서 다시 악성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 된다.

인간의 본성은 크게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로 나눌 수 있는데,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학자로 맹자와 루소를 들 수 있다.

맹자는 주장하는 도덕설의 중심 이념인 성선설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며 그렇기 때문에

성무성악설은 중국의 고자(告子)와 서양의 로크의 사상으로 인간의 본성에는 선이나 악이 없다거나 처음에는 백지 상태인 본성만 있다는 사상이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세 가지의 견해는 교육과 관련하여 그 독특한 특성을 달라진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하나로 규정지어 버리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고, 다만 각각의 견해에서 도출되는 교육의 의미를 찾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관은 교육 현상 전반에 대한 통일되고 일관된 관점, 혹은 신념을 의미한다. 보통 교육 개념, 교육 목적, 학생관, 이상적인 교사상 등에 대한 자신의 소신이나 생각이 체계화된 교육적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교육학에서는 보통 교육관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목공적 교육관, 정원사적 교육관, 각성적 교육관이 그것이다.

목공적 교육관은 형성적 교육관, 또는 전통적 교육관으로 불리는 것으로, 교육을 ‘사람을 만드는 일’로 파악한다. 목공이 나무를 자신의 생각대로 다듬어 물건을 만들듯이, 교육은 국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국가 사회에서 정해준 틀에 맞춰 만들어 제공하는 일이며, 따라서 교사는 목수처럼 기술자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주입식, 주형적 교육, 그리고 사회화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교육은 이런 목공적 교육관에 기반하고 있다.

정원사적 교육관은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만남을 강조하는 교육관으로, ‘사람을 일깨워 그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마치 쇠파리의 자극으로 늙은 군마가 잠에서 깨어나는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교육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학생의 참 자아를 회복하는 ‘남님’과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각성적 교육관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과 교육관

인간의 본성과 이러한 교육관들의 관계를 연결시켜 보면, 인간의 본성이 악이라는 성악설의 입장

을 취한다면, 교정을 통해 선으로 가야 하므로 목

공적 교육관과 연결되고, 인간의 본성이 선이라면 개인의 본성을 가꾸기만 하면 되므로 정원사적 교

육관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교육의 의미를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면, 세 가지 교육관으로 각각으로 연

결되는 것은 아니다. 목공적 교육관에 성악설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정원사적 교육관에 성선설의 입장이 강조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목공적 교육관이 자연적인 본성을 강제적으로 교정하는 것이며, 정원사적 교육관이 자연 본성의 유지와 발현을 강조한다고 볼 때, 인간의 본성 문제와는 그 궤를 달리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건국대학교 기출문제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본성이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에 탐탁하지 않는다는 제시문과 성악설의 입장은 강조한 제시문을 출제하여,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관점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바람직한 교육에 대한 견해를 요구한 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경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선설과 성악설의 이분법적 구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본성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통제할 것인가가 이 문제의 중요 쟁점 사안이 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살려야 한다는 입장에선다면, 교육은 주어진 본성의 계발, 즉 학습자 개개인이 가진 성적과 자질, 잠재력을 자연스럽게 키우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반면 인간의 본성을 약화하고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선다면, 교육을 통해 악한 본성을 바로잡고 조화로운 사회에 적합한 인물형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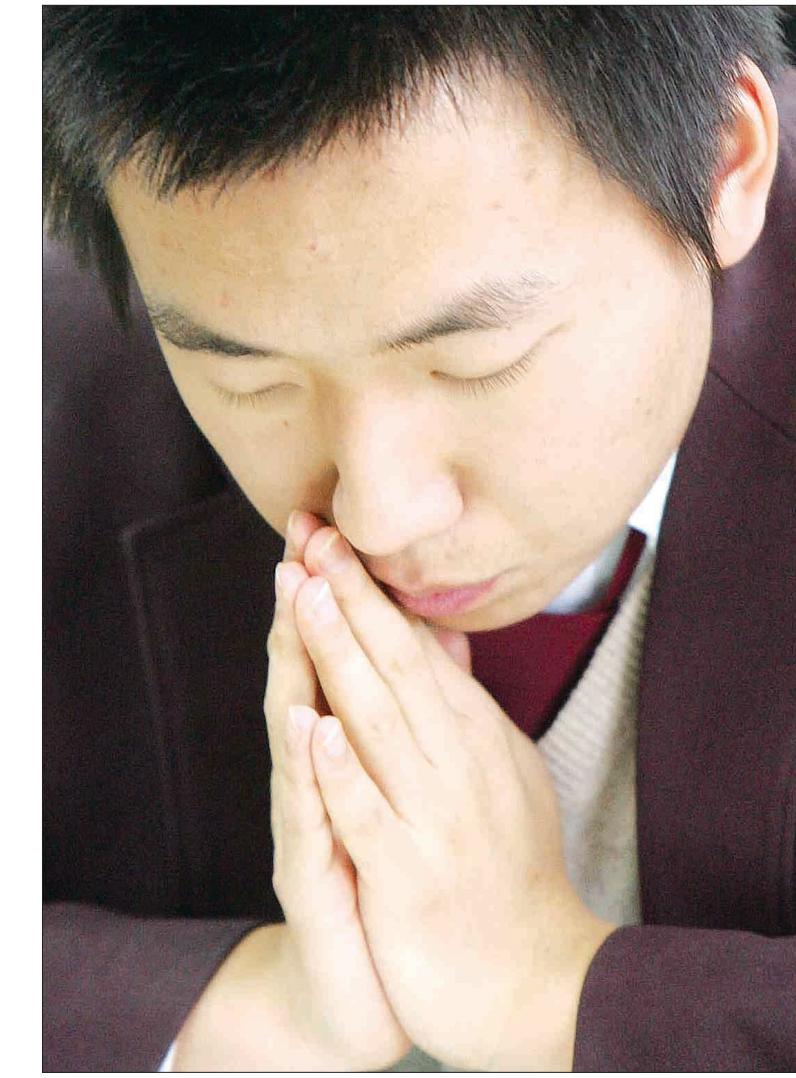
을 펼 수 있다.

교육과 인간의 욕망

교육과 관련하여 인간의 본성으로서 욕구 또는 욕망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만 한다. 동서양의 많은 사상가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인격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를 최대한 고귀한 상태로 상승시키는데 가장 주요한 장애물로, 인간의 사사로운 욕구를 지목해 왔다. 플라톤에서부터 중세시대의 학파, 데카르트, 칸트에 이르는 이성주의 철학자뿐만이 아니라 현대철학의 사조로 일컬어지는 쇼펜하우어까지도 욕구에 대한 통제와 조절을 중시했다.

인간의 욕구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교육에 있어서도 진정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할 수 있다. 욕구의 성격과 관련된 많은 논의는 그것을 무엇으로 규정하든 간에, 물바른 인간과 물바른 삶에 대한 생각과 맞물려 있으며, 물바른 교육에 대한 생각도 그 속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의 욕구와 욕구의 물바른 표현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본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자연, 문명의 관계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실마리가 된다.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성선설과 성악설, 그리고 인간의 욕망에 관한 철학적인 고찰들이 교육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교육관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실전 문제]

제시문의 내용을 미루어 보면 일본과 미국은 성장 과정에 따라 교육 방식의 차이를 보인다. 거기에 내재한 두 나라의 인간 교육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 서술하라.(400자 내외)

일본의 유아는 사려 깊은 서구인이 상상하는 양양과는 다른 방법으로 양육되고 있다. 미국의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일본의 생활에 비하여 훨씬 신중함과 극기를 덜 요구하는 생활에 암昧하게 훈련시키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갓난아이에 대하여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의 작은 소망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우리들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젖을 주고 일정한 시간에 재운다. 젖을 먹는 시간이나 자는 시간이 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갓난아이는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 후에는 어머니는 손가락을 물든가 그 밖의 신체 부분을 만지는 것을 금기시키기 위해 갓난아이의 손을 때린다. 어머니는 가끔 아이들에게서 모습을 감추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어머니가 외출한 동안에는 갓난애는 집에서 흘러 물려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애는 다른 음식들보다 젖을 먹고 싶을 때 젖을 떼고 혹은 분유로 자란 아이라면 우유병을 빼앗겨 버린다. 신체에 좋다는 일정한 음식이 정해져서 어쨌든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사람 구실을 하게 된 다음 자신의 소망을 누르고 그처럼 주의 깊게 엄격한 도덕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본의 젖먹이 아이들은 분명히 이것보다 몇 배의 엄격한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미국인을 상상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인의 양육 방법은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 일본의 생활 쪽은 미국과는 정반대다. 그것은 U자 곡선으로 갓난아와 노인에게 최대의 관대함과 자유가 허락된다. 유아기를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구속이 커지고 바로 결혼 시기의 전후에 이르러 자신의 자유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최저선에 도달한다. 이 최저선은 장년기를 통하여 몇십 년 계속 되는데 그 후 곡선은 다시 서서히 상승하여 60세가 지나면 거의 유아와 마찬가지로 부끄러움과 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된다. 미국에서는, 우리는 이 곡선을 반대로 하고 있다.

-루스 베네딕트 ‘국화와 칼’

인간의 본성 ‘살릴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에 초점

살린다면 자질 키워주고 통제한다면 악한 본성 교정

죽은(惻隱), 수오(羞惡), 사양(辭讓), 시비(是非) 등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각각 인, 의, 예, 지의 4단(四端)이며, 사람은 4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단(端)이라 함은 선이 발생할 가능성을 가진 시초를 말한다.

서양의 대표적인 성선설의 주장자는 루소인데, 그의 저서 ‘에밀’에서 독자적인 사상을 설파하였으나, ‘에밀’이라는 고아가 요즘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상적인 가정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성장하는 과정이 적절한 묘사로 기술되어 있는 이 책에서, 루소는 자연 상태를 강조하며 자연 생활을 주장하였다. 인류의 자연 본성은 본래 선한 것인데 역사 문명과 사회 제도의 영향을 받아 악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성악설의 대표적 학자는 동양의 순자(荀子)이다. 그는 “사람의 성(性)은 악이다. 그 선한 것은 위(偽)이다”라고 주장하며, 배움으로써 선으로 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교육의 의미를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면, 세 가지 교육관으로 각각으로 연

LCE타워(주)

(주)972-8004, 헌 010-7154-6996

첨단지구 LC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 이상 ★유령메이커 운집

■ 각종 학원 임대

50~200평

■ 병의원 임대

50~250평

■ 라이브홀, 스카이라운지

120~230평

■ 사무실 임대

27~400평

사업 동업자 구함

좋은 업종이 있어도 초기
자금(부담되는 임대료)때
문에 막설이신다면 전화
주시십시오!

부동산 교환 환영

상가와 어떤 부동산 이든
교환 환영

- 중개업자 중개 환영 -

일가공인중개사

(주)234-8216 헌 011-609-0896

(광주우체국부근)

상기건물 매매

총장로 대지 75평 5층동 29억 1,700만 21억

금남로 2호로변 대로변 50평 1,300만 900만 2억

전화 010-7154-6996

전화 010-7154-6996